

11월 03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0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국시장 상승세 [다우: 9,325.01pt (+ 1.57%)]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업어음(CP) 매입을 비롯해 공격적인 추가 금리인하, 한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잇따른 통화스왑 계약 등 미국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끝장개입에 나서면서 안정화 신호에 불이 들어오고 있음.
전세계 주식 `바겐세일` `..`40년 최저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각) 전세계 주식시장이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수준으로 `싸졌다`고 보도. 금융위기로 기업 실적 악화가 전망되고 있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어 더이상 놀랄만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
한국관련펀드, 14주째 자금 이탈..규모도 확대	한국관련 해외 뮤추얼펀드에서 14주째 자금이 빠져나갔고 유출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음.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관련펀드에서 지난주(10월23~29일) 20억6,800만달러 자금이 유출되었음. 한주전(10월16~22일) 5억6,900만달러가 빠져나간데 이어 그 유출규모도 크게 늘어남.
주식펀드 순자산액 회 복세..80조원대 복귀	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일보다 981억원 증가한 139조4,758억원을 기록했음. 국내 주식형펀드는 9,564억원 늘어난 84조6,822억원, 해외 주식형펀드는 8,583억원 감소한 54조7,936억원으로 나타났음.
日 6대은행, 금융위기 로 상반기 '1조엔' 손실	2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 등 6대 은행그룹은 2008회계연도 상반기 보유주식의 평가손실로 2,800억엔, 불량채권 처리로 7,200억엔 등 1조엔의 손실을 기록. 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주원인이지만 불량채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주가 침체도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의 경영이 '비상 체제'로 접어듬.
中 제조업 3년래 가장 위축	블룸버그통신은 1일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가 9월 51.2에서 10월 44.6으로 하락했다고 보도. 이는 지난 2005년 7월 지수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왕치안 JP모간체이스 홍콩지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효과적 경기 부양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 전망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한은 1조원 RP매입	한은은 1조원 RP입찰을 통해 은행채와 통안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의 영향으로 CD금리가 8bp 하락.
무역흑자 12억불, 수 출, 수입증가율은 10% 대로 추락	19월 무역수지가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0% 상승하는데 그침. 유가 하락으로 수입 증가율도 크게 낮아지면서 12억 달러 흑자 기록

제목	주요 내용
대기업 체감경기 ‘뽕뽕’ 11월 BSI ‘63.7’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IS)를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이 63.7로 나타나 200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실물경제가 점차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
생산자-소비자물가 격차 ‘외환위기이후 최대’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들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2.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보여 두 물가상승률 간 격차가 6.5%포인트를 기록. 외환위기 기간중 가장 격차가 컸던 98년 2분기의 5.7% 포인트를 넘어선 수치.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